

李濟馬의 五藏論 研究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방정균*

The Core of Five Viscera Theory Created by Lee, Je-Ma

Dept.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Bang, Jung-Kyun

Lee Je-Ma's theory claimed Xin(心) as Qi(氣). But he also described Xin as Taiji(太極) in the center as if Xin combines LI(理) and Qi. Taiji is meant to be a residence of the body, but it does not mean that Xin equals Li. The relations between Xin and the remaining four viscera are similar to the relations between RenXin(人心) and DaeXin(道心) and Zhuzi's(朱子) theory in many respects. If the theory that Xin equals Daoxin and FeiPiGanShen(肺脾肝腎) equals RenXin is acceptable, the vertical relations between Xin and FeiPiGanShen can be explained. That is, Xin is explained as the controller of the body, and FeiPiGanShen acts as a subordinate serving Xin. In other words, the relations associated with Xin can explain physiological states of the body. When the Xin does not function normally, FeiPiGanShen cannot perform its roles and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physiological functions of the body.

Key Words: RenXin(人心), DaeXin(道心), Xin(心), FeiPiGanShen(肺脾肝腎)

I. 序 論

그동안 韓醫學은 민족의학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우리의 전통정신을 계승하는 학문으로 인식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인식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한의학 말살 정책을 이겨내고 한의학이 명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의 독립성과 체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 요소로도 작용되어 왔다. 즉, 전통의학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았지만,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오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자에 들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바뀌어 가고 있고, 특히 서구에서는 한 의학을 대체의학의 범주에 넣어 현대 의학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서양학과 한의학은 서로의 철학적 기반과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더

* 교신저자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033-730-0668
e-mail: A95005@gmail.com

나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학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한국의 한의학은 중국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논자는 근래에 들어서 학계가 한국 韓醫學을 中醫學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四象體質醫學에서 찾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상체질 의학이란 약 100여 년 전에 東武 李濟馬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의학 이론이다. 지금까지 동무 이제마에 관한 연구는 그의 저서인 『東醫壽世保元』 및 『格致藁』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의학이론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론을 제시하였고, 또한 그의 의학이론이 그 자신만의 性理學적 철학의 근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면이 이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동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서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체질의학의 핵심은 인간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4가지 類型으로 구분을 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인간의 생리와 병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체질 감별은 체질의학의 시작이자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東武는 四象人으로 구별되는 이유를 藏府의 大小로 설명하고 있다. 즉, 肺脾肝腎의 4藏의 大小로 四象人이 나뉘어지고, 四象人은 각각의 특징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四象人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지만, 藏府의 大小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四象人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을 心과 관련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무의 心論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으로, 心과 肺脾肝腎 四藏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四象人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II. 本 論

본 논문은 東武의 체질의학에서 心과 肺脾肝腎의 관계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心과 肺脾肝腎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東武의 氣稟論과 心論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그의 氣稟論과 心論을 간단하게 살펴본 뒤, 心과 肺脾肝腎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1. 氣稟清濁의 부정

東武는 인간을 肺脾肝腎의 大小에 의해 4가지 類型의 藏局이 형성되고, 이 藏局에 의해 각기 경향성을 가지는 四象人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향성의 의미에 대해서 2가지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첫째, 四象人을 선천적으로 臟腑의 大小와 心慾의 偏在 현상을 갖고 태어나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¹⁾. 둘째, 臟腑의 大小에 의해 구분되는 四象人은 경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臟腑의 大小에 따른 藏局의 경향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²⁾.

이 가운데 四象人을 불완전한 존재로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근거를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 기술된 다음의 문장에서 찾고 있다.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已定, 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而不全其天稟者, 則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太少陰陽의 臟局 短長은 陰陽의 변화이다. 이미 정해진 天稟이야 논의 할 수 없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天稟 이외에 또 短長의 문제가 있으니 天稟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자이다. 이는 人事가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命이 달려 있으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³⁾

- 1) 宋一柄. 李濟馬 哲學의 學問의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1. 3(1). p. 4.
李相基. 四端論에 나타난 人間觀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7. 9(1). p. 200.
- 2) 방정균, 정창현. 芸菴 韓錫地 思想 研究-李濟馬 思想과의 比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p. 66-67.
-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93. p. 12.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문장은 人事의 修·不修에 따라 수명이 좌우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天稟이 불완전하다는 내용은 아니다. 東武는 喜怒哀樂의 性情에 의해 臟局이 형성된다고 설명하는데, 만일 위의 문장에 근거해 四象人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聖人の 性情도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⁴⁾. 聖人에 대해 東武는 衆人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衆人이 좌표로 삼아야 할 이상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즉, 衆人이 믿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인간 본연의 완전성을 구비한 人間型으로 聖人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形氣의 측면에서는 聖인도 衆인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臟局은 性情에 의해 형성되는데, 聖인은 至善의 性情을 통해 臟局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臟局에 의해 경향성을 가지지만 形氣의 측면에 있어서도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形氣의 측면에서 聖인과 衆인이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聖인과 衆인이 先天의인 氣稟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衆人の 경우에도 태생적으로는 완전성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만, 後天的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聖인과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東武는 聖인과 衆人을 분리해 놓으면서, 聖인과 衆인이 나뉘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曰堯舜之耳目口鼻，不蔽於私，而善於聽視言貌，衆人之耳目口鼻，蔽於私，而不善於聽視言貌。堯舜之肺脾肝腎，不蔽於慾，而善於學問思辨，衆人之肺脾肝腎，蔽於慾，而不善於學問思辨，此所以異也。(요임금과 순임금의 耳目口鼻는 私慾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聽視言貌를 잘 하고, 衆人の 耳目口鼻는 私慾에 가려지기 때문에 聽視言貌를 못한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肺脾肝腎은 私慾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學問思辨을 잘하고, 衆人の 肺脾肝腎은 私慾에

가려지기 때문에 學問思辨을 못하게 되니, 이것이 달라지는 이유이다.)⁵⁾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東武는 耳目口鼻와 肺脾肝腎의 形氣가 私慾에 가려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聖인과 衆인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氣稟清濁論을 부정하면서 先天의인 氣稟에 있어서는 “聖凡如一”의 입장을 취하면서, 聖인과 衆인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人事의 수행 여부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病理的 狀況을 臟腑의 大小와 心慾의 偏在 현상으로 인한 태생적인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2. 東武의 心論

앞에서 이미 氣稟에는 清濁의 구별이 없이 聖인과 衆인이 동일하지만, 人事의 수행 여부에 의해 聖인과 衆인이 구별됨을 설명하였다. 즉, 타고난 形氣에는 차이가 없지만, 현실에 드러나는 현상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東武는 人事의 수행 여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人事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관계되는 것은 무엇인가? 東武는 이에 대해 心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장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五臟之心，中央之太極也，五臟之肺脾肝腎，四維之四象也，中央之太極，聖人之太極，高出於衆人之太極也，四維之四象，聖人之四象，旁通於衆人之四象也。(太少陰陽의 臟局短長은 네 가지로 같지 않은 것 가운데 동일한 하나가 있으니 이는 天理의 變化이다. 그래서 聖인과 衆인이 같다. 鄙薄貪懦의 心地清濁은 네 가지 서로 같지 않은 중에 萬 가지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는 人欲의 많고 적음 때문이다. 그래서 聖인과 衆인이 萬 가지로 다른 것이다)⁷⁾

4) 방정균, 정창현. 芸菴 韓錫地 思想 研究-李濟馬 思想과의 比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 99.

5) 李濟馬. 格致彙. 德興印刷所. 1940. p. 141.

6) 방정균, 정창현. 芸菴 韓錫地 思想 研究-李濟馬 思想과의 比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p. 86-87.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太少陰陽의 臟局短長은 네 가지로 같지 않은 것 가운데 동일한 하나가 있으니 이는 天理의 變化이다. 그래서 聖인과 衆인이 같다. 鄙薄貪懦의 心地清濁은 네 가지 서로 같지 않은 중에 萬 가지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는 人欲의 闊과 狹을 積음 때문이다. 그래서 聖인과 衆인이 萬 가지로 다른 것이다.)⁸⁾

이상의 문장에서 기술되었듯이 東武는 肺脾肝腎의 臟局長短에 의해 四象人이 나뉘어 지는데 이 경우는 聖인과 衆인이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鄙薄貪懦의 心の 清濁은 만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聖인과 衆인이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聖인과 衆인의 구별점을 心에서 찾으려 하면서, 心을 中央의 太極으로 표현하고 있다. 東武는 心을 人體의 生理·病理 現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主宰者로 인식하면서, 이 心の 善惡으로의 傾度에 따라 聖인과 衆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心은 善과 惡으로 치우칠 수 있는 可變的인 존재인데, 聖인인 경우 至善을 잘 유지하여 衆人之心보다 높은 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⁹⁾.

3. 心과 肺脾肝腎의 관계

이상에서 氣稟清濁 및 心の 개념에 대한 東武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心과 肺脾肝腎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四象人은 肺脾肝腎의 大小長短에 의해 4가지 類型의 臟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 臟局의 상태

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때문에 체질의학을 연구함에 있어 肺脾肝腎 四臟의 大小長短에 의해 발생하는 臟局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東武는 체질의 결정 요소인 肺脾肝腎 보다 心을 中央의 太極이라고 하여 一身의 主宰者로 인식하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人體의 主宰者인 心과 肺脾肝腎의 四臟 間에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에 논자는 朱子의 人心道心論을 중심으로 東武의 心과 四臟間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朱子의 人心道心論을 『中庸·章句序』에 나타난 문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蓋嘗論之,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為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為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 然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不能無人心, 亦莫不有是性, 故雖下愚不能無道心, 二者雜於方寸之間, 而不知所以治之, 則危者愈危, 微者愈微, 而天理之公, 卒無以勝夫人欲之私矣. 精則察夫二者之間而不雜也, 一則守其本心之正而不離也, 從事於斯, 無所間斷, 必使道心, 常為一身之主而人心, 每聽命焉, 則危者安, 微者著而動靜云為, 自無過不及之差矣. (대저 일찍이 논해보건대, 마음의 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인데 人心과 道心の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혹 그 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기고 혹 性命의 바름에 원천을 둠으로써 知覺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의해 혹 위태하여 불안하고 혹 미묘하여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形氣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자질이 뛰어난 사람(上智)이라도 人心이 없을 수 없다. 또 (사람은) 性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下愚)이라도 道心이 없지 않다. (人心과 道心) 두 가지가 方寸(心)의 사이에서 섞여 그것을 다스릴 바를 알지 못하면, 위태로운 것은 더욱 위태롭게 되고 은미한 것은 더욱 은미해져 天理의 公的인 것이

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93. p. 7.

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93. p. 7.

9) 방정균, 정창현. 芸菴 韓錫地 思想 研究-李濟馬 思想과의 比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pp. 103-104.

마침내 人欲의 사사로운 것을 이길 수 없게 된다. 精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이를 살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요, 一이라는 것은 本心の 바름을 지켜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 精과 一에 종사하여 조금의 단절되는 틈도 없게 하여 반드시 道心으로 하여금 항상 一身의 주인이 되게 하고, 人心으로 명령을 듣게 한다면, 위태로운 것은 안정되게 될 것이고 은미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저절로 過하고 不及한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¹⁰⁾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朱子는 道心을 性命之正에서 근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一身의 주인으로 인식하였고, 人心은 形氣之私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道心の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人心과 道心の 관계에 있어 朱子가 강조한 부분은 道心을 一身의 주인으로 삼고, 人心으로 하여금 道心の 명령을 듣게 하여 행동에 있어 過不及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朱子의 人心道心論을 東武의 五藏論에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一身의 주인으로 삼아야 할 道心은 東武에 의해 中央之太極으로 표현되어 一身의 主宰者로 인식되는 心和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耳目口鼻과 관계되는 肺脾肝腎은 形氣之私에서 생겨나는 人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心和 四臟간의 관계 역시 道心和 유사한 心이 主宰者로서 작용을 하고, 人心과 유사한 肺脾肝腎의 四臟이 心の 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東武는 肺脾肝腎의 경우는 聖인과 衆인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耳目口鼻와 肺脾肝腎의 形氣가 私慾에 가려지게 됨으로써 聖인과 衆인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耳目口鼻와 肺脾肝腎의 形氣가 私慾에 가려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形氣의 본능적이면서 생리적인 욕구

는 人欲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人欲에 대해 東武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태적인 욕구로 인식하여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頤臆臍腹의 驕矜伐夸의 私心과, 頭肩腰臀의 奪侈懶竊의 私慾에 의해 形氣가 가려지는 것이다¹¹⁾. 즉, 形氣의 본태적 욕구인 人欲은 聖인과 衆인이 차이가 없이 모두 존재하지만, 聖인은 心이 적절하게 작용하여 人欲을 조절함으로써 私慾에 가려 지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衆인은 心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形氣가 私慾에 가려 지게 되어 聖인과 차이가 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극소수의 聖인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形氣가 私慾에 가려져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東武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東武는 일반 사람들의 耳目口鼻와 肺脾肝腎의 경우 모두 聖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¹²⁾. 그러나 문제는 衆인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聖인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논자는 東武가 제시한 中央之太極인 心の 작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心이 一身의 主宰者로서 주도적인 작용을 하고, 形氣인 肺脾肝腎과 耳目口鼻가 心の 명령을 받들게 되면 形氣의 私慾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私慾에 가려 짐으로써 구분되었던 聖인과 衆인의 차이는 없어지게 되고, 衆인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四象人은 臟局에 의해 경향성이 생기게 되고, 또한 각각의 臟局에 의해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리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발생 원인을 四象人이 가지고 있는 본태적인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즉, 병리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耳目口鼻와 肺脾肝腎의 形氣가 私慾에 가려진 결과로 발생하는

11) 方正均. 東武와 清代의 人性論 比較. 韓國醫史學會誌. 2003. 16(1). pp. 130-132.

1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93. pp. 3-4.
“耳目口鼻, 人皆可以爲堯舜,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

10) 中庸. 대전. 학민문화사. 1990. pp. 9-14.

것이다. 그러므로 心이라는 一身의 主宰者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耳目鼻口 및 肺脾肝腎의 形氣가 사육에 가려 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상인 특유의 경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III. 結 論

東武는 心을 氣로 인식하면서 아울러 中央의 太極이라 표현하여, 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理氣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太極으로 표현한 心은 인체의 主宰者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다. 한편, 東武는 肺脾肝腎의 大小에 따른 四象인이 경향성을 가지는 것에 있어 聖인과 衆人の 구별이 없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心和 四臟간의 관계를 人心, 道心論에 연계하여 보면 心은 道心和 연결되고, 肺脾肝腎은 人心과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心이 본성을 유지하면서 形氣와 관련이 되는 肺脾肝腎을 잘 이끌고 가면 聖인과 衆人の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主從관계가 깨지면서 私慾에 빠져 人事를 제대로 닦지 못하게 되면 聖인과 衆人の 차이가 생겨나고 병리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參考文獻

<논문>

1. 방정균, 정창현. 芸菴 韓錫地 思想 研究-李濟馬 思想과의 比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16(2).
2. 방정균. 東武와 清代의 人性論 比較. 韓國醫史

學會誌. 2003. 16(1).

3. 李相基. 四端論에 나타난 人間觀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7. 9(1).
4.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의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1. 3(1).

<단행본>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93.
2. 中庸. 대건. 학민문화사. 1990.
3. 李濟馬. 格致藁. 德興印刷所. 1940.